

비매낫할망당은
 산신백관으로 곁이
 내^흐여 온 할마님이우다.
 할으방은 동산당인디
 부^느름우로 좌정^흐고,
 할마님은 부^느름알로
 알녁밭이 좌정^흐여
 상을 받읍네다.
 초담에 산신백관으로
 할망 할으방이
 훈디 누^느로오단
 하도 애가 써지난
 뜯짓자국에 물 뺏아먹언
 누^느와시난
 할으방은
 “존경내가 과^흐시다
 어떤 일이냐?” 흐연
 “돛짓자국에 물을 먹었수다.”
 그러니,
 “나광 훈디 못았나.
 추접^흐다,
 부^느름알로 가라.” 흐연,
 경^흐난,
 이 지금??지도
 들들이 모든 주손들이
 생기 맞은 날로
 아무 들이나 강
 젤 지냅네다.

제일, 주손에 생기 맞은 날.

<애월면 소길리 남무 72세 양시봉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.602.